



책읽는꿈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아이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책을 만듭니다.





코딱지 할아버지

신순재 글 · 이명애 그림 | 책읽는곰 펴냄

오래오래 간직하고픈 할아버지와 나만의 비밀!

진짜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법

우리 할아버지는 코딱지 할아버지다.

콧구멍이 커서 코딱지도 엄청나게 나온다.

우리 할아버지는 코딱지 멀리 튕기기 검은 띠다.

엄지와 검지로 코딱지를 돌돌 말아서 툭 튕기면 휘익 날아간다.

할아버지는 그 비법을 나한테만 알려 줬다.

우리는 둘만 아는 비밀이 진짜 많다.

진짜 좋아하는 사이라서 그렇다.

할아버지가 멀리멀리 떠나기 전에 나한테만 알려 준 비밀이 하나 더 있다.

내가 할아버지 새 이빨이라는 거.

할아버지가 세상에 남겨 둔, 할아버지를 쏙 빼닮은 새 이빨이라는 거…….

이명애 작가를 소개합니다

해마다 5월이면 여수에 내려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 산소를 찾기 위해 서지요.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아이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그럴 때면 죽음이 언제나 슬픔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 할아버지는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푸르른 언덕에 계신 분이니까요.

그림책 《10초》와 《플라스틱 섬》을 쓰고 그려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었으며, 나미콩쿠르 은상과 BIB 황금패상을 받았습니다. 《잘 들어주는 개》, 《신통방통 홈쇼핑》, 《시원탕 옆 기억사 진관》, 《우리 동네 택견 사부》,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라면》을 비롯한 여러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책놀이 1 정답

5 → 3 → 7 → 1 → 2 → 6 → 8 → 4

책놀이 2 정답

엄지, 검지, 바람

책놀이 7 정답

머리카락, 코딱지, 코딱지

그림책을 보기 전에

1. 표지 속 할아버지와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2. 할아버지가 손으로 무엇을 튕기고 있을까요?
3. 할아버지가 도복에 검은 띠를 매고 있는데, 무슨 기술을 가지고 계실 것 같나요?

그림책을 보고 나서

1. 코딱지 할아버지처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2. 여러분에게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나눈 비밀이 있나요?
3. 할아버지의 새 이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책놀이 1 순서대로 이야기 만들기

아래 조각 그림을 보고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써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림책을 한 번 더 읽어 보아도 좋아요.

《코딱지 할아버지》는 어떤 이야기였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일이 일어난 순서:



책놀이 2 코딱지 도사

코딱지를 멀리 튕기는 데 도사인 할아버지는 민이한테만 비법을 알려 주었지요.
그 비법이 무엇인지 아래 그림을 보고 내용을 떠올려 답을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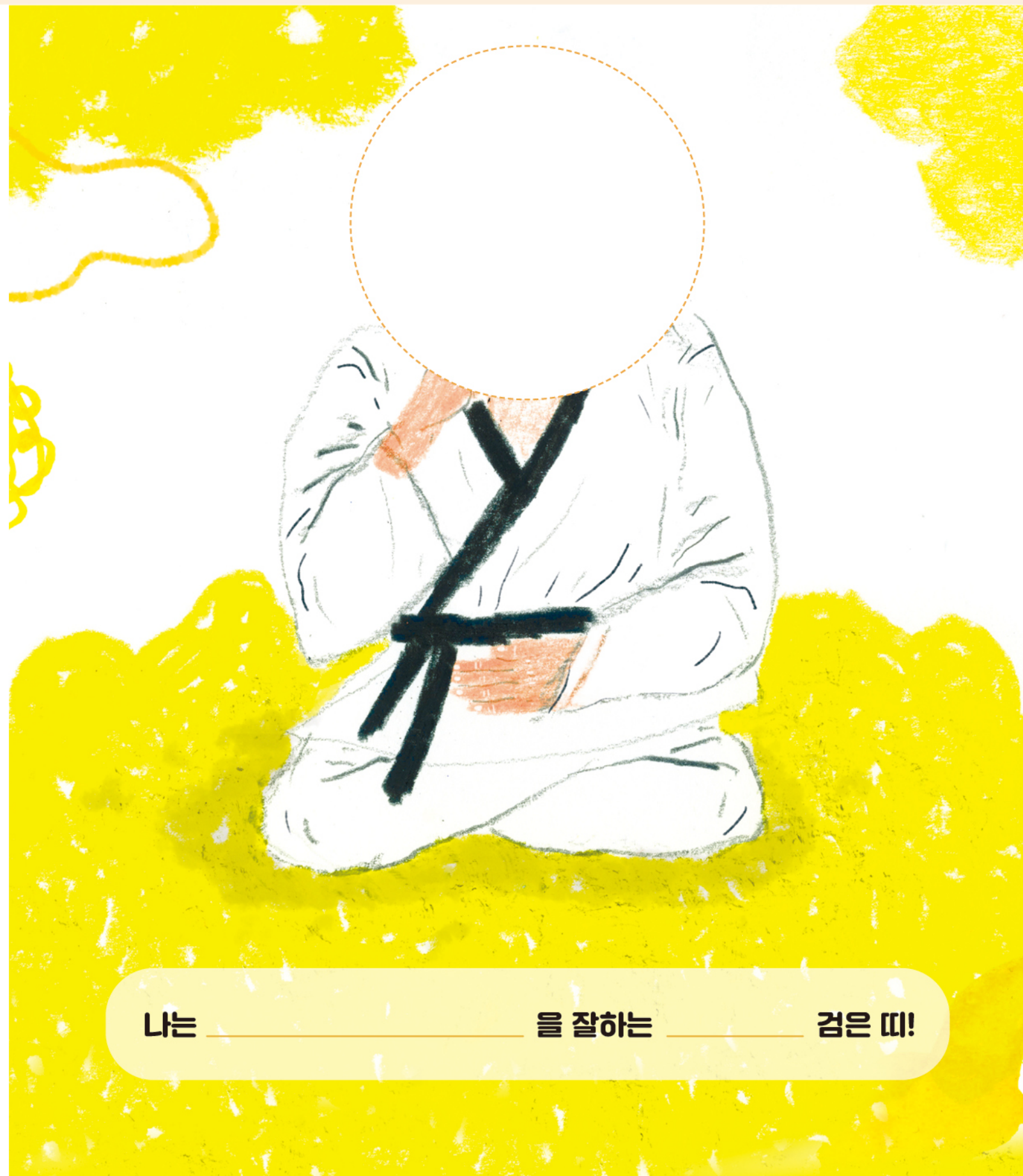
코딱지를 멀리 튕기려면 ○○○ 람 ○○○ 로

돌돌 말아서 툭 튕기면

○○○ 을 가르며 휘익 날아간다.

책놀이 3 나도 검은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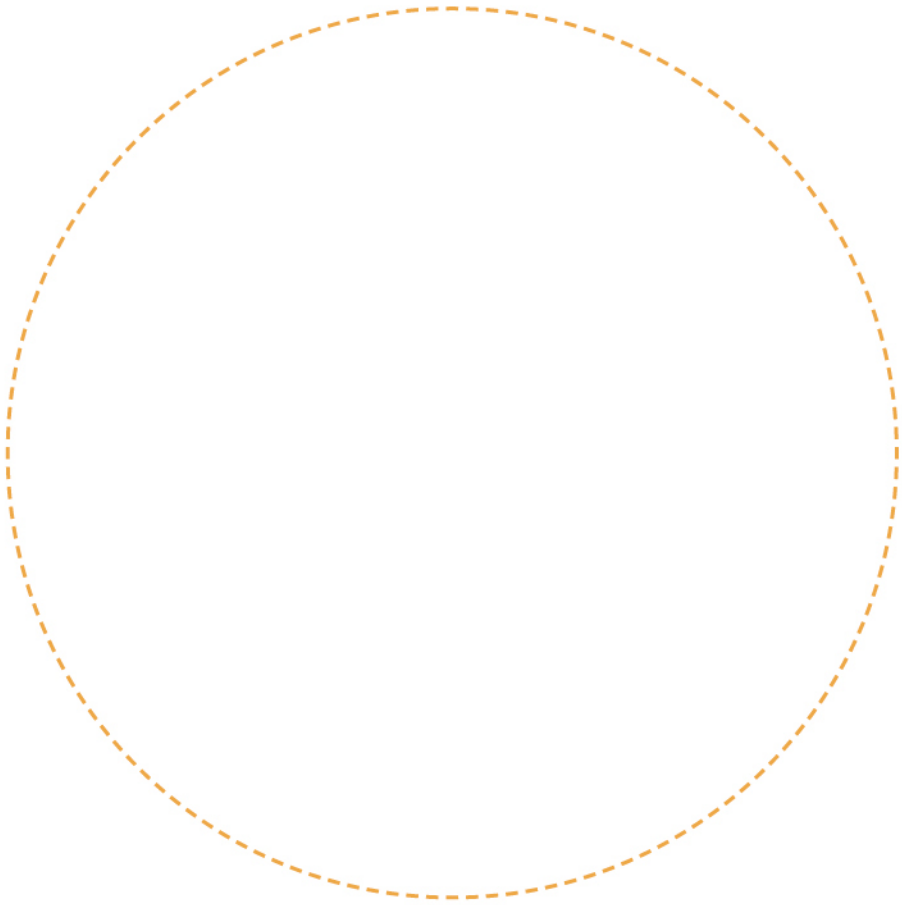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코딱지 멀리 튕기기 검은 띠예요. 여러분도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검은 띠랍니다.
할아버지 얼굴 대신 내 얼굴을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써 볼까요?



나는 _____ 을 잘하는 _____ 검은 띠!

책놀이 4 진짜 좋아하는 사이

할아버지와 민이는 둘만 아는 비밀이 많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이라서 그렇지요.
여러분에게도 둘만 아는 비밀이 많은, 서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아요. 아래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림을 그리고 소개해 볼까요?



나와 _____ 는 진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

,

을 할 수 있어요.

나는 _____ 에게

라고 말하고 싶어요.

책놀이 5 흔들흔들 까딱까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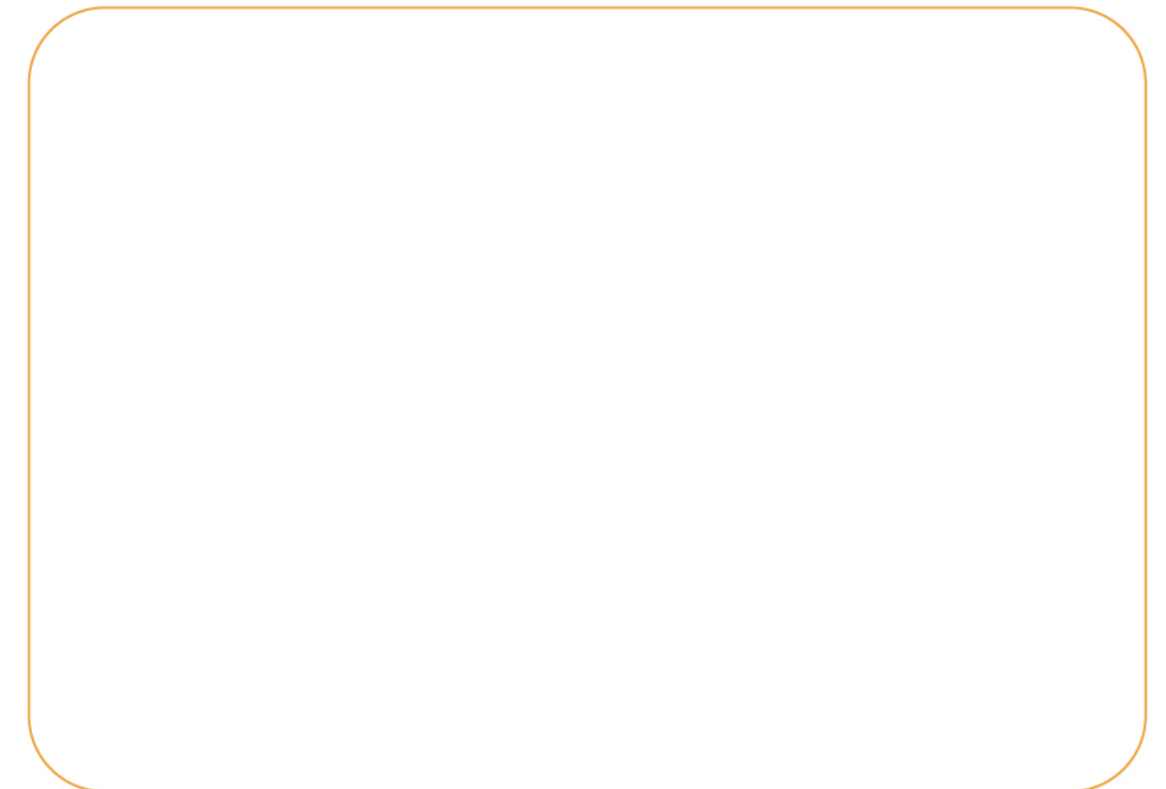
민이 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는 이 때문에 코딱지 생각도 싹 까먹었지요.
흔들흔들 까딱까딱, 여러분도 빠지거나 흔들리는 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빠진 이가 있으면 그 자리에 X, 흔들리는 이는 △로 아래 그림에 표시해 보세요.



책놀이 6 내 이는 내가 지킨다!

이가 흔들리자, 민이는 할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좋아하던 이를 지키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좋아하던 껌도, 과자도, 떡도 멀리 하지요.

이가 빠지지 않으려면 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그림을 보면서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빈 칸에 민이와 피해야 할 음식을 그려 보고, 음식 이름도 써 볼까요?



좋아하는 이가 빠져서 속상한 민이에게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이가 빠지면 새 이가 난다고,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뒤에 두 사람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그림을 보면서 떠올려 볼까요?

“손톱도 자르면 다시 자라지?”

“응, 발톱도.”

“○○○○도 자르면 다시 자라지?”

“응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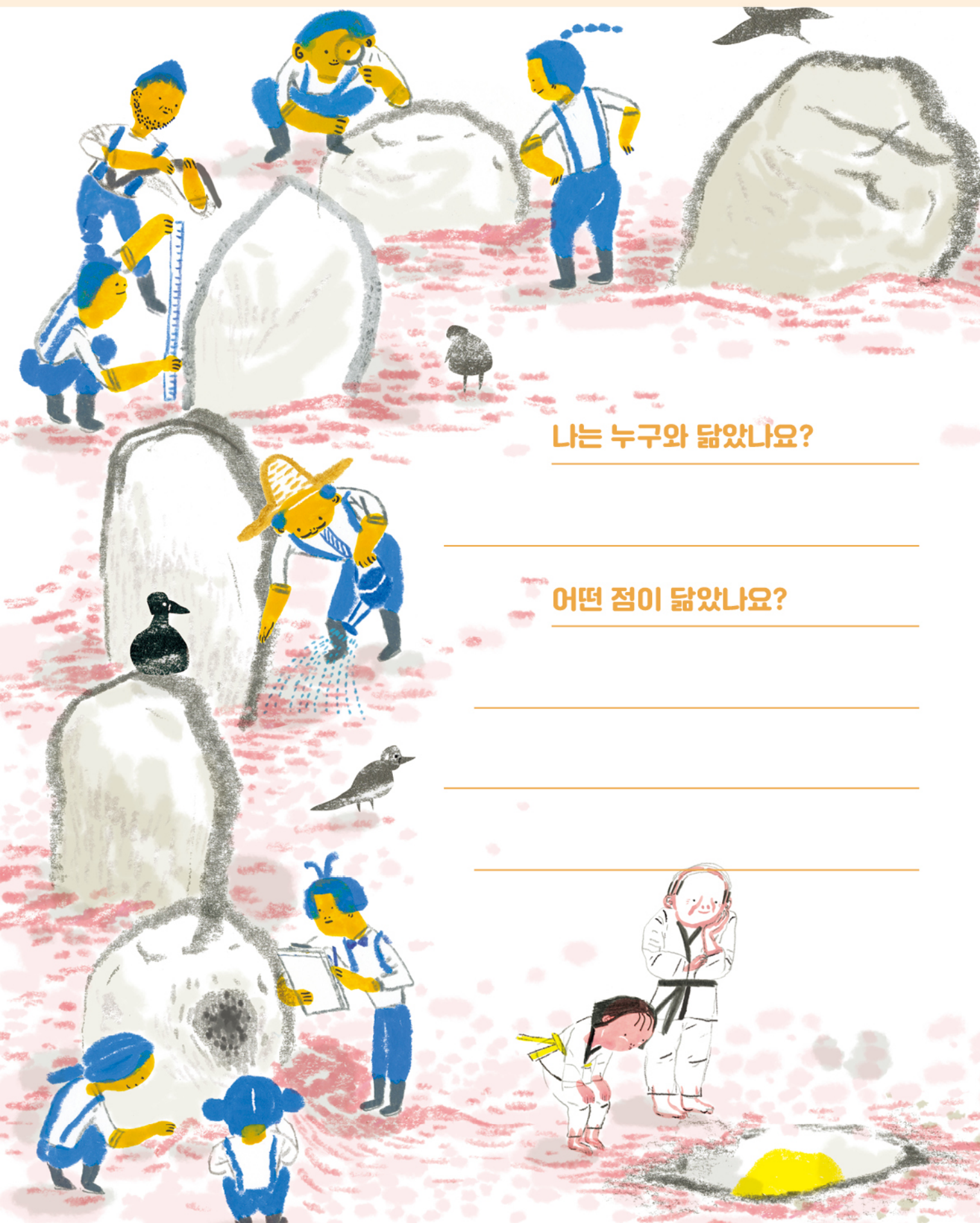
“○○○○도 파면 다시 생기잖아!”
말하고 보니 웃음이 난다.

책놀이 8 나는 할아버지 새 이빨

민이가 할아버지의 새 이빨이래요. 헌 이가 빠지면서 남겨 둔, 좋아하는 모습을
꼭 빼담은 새 이. 여러분은 가족 중에서 누구를 닮았나요? 어떤 점이 가장 닮았나요?

책놀이 9 진짜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일

민이가 진짜 좋아하는 이도 빠져 버렸고, 진짜 좋아하는 할아버지와도 헤어졌어요.
여러분도 진짜 좋아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적이 있나요? 어땠는지 적어 보세요.



나는 누구와 닮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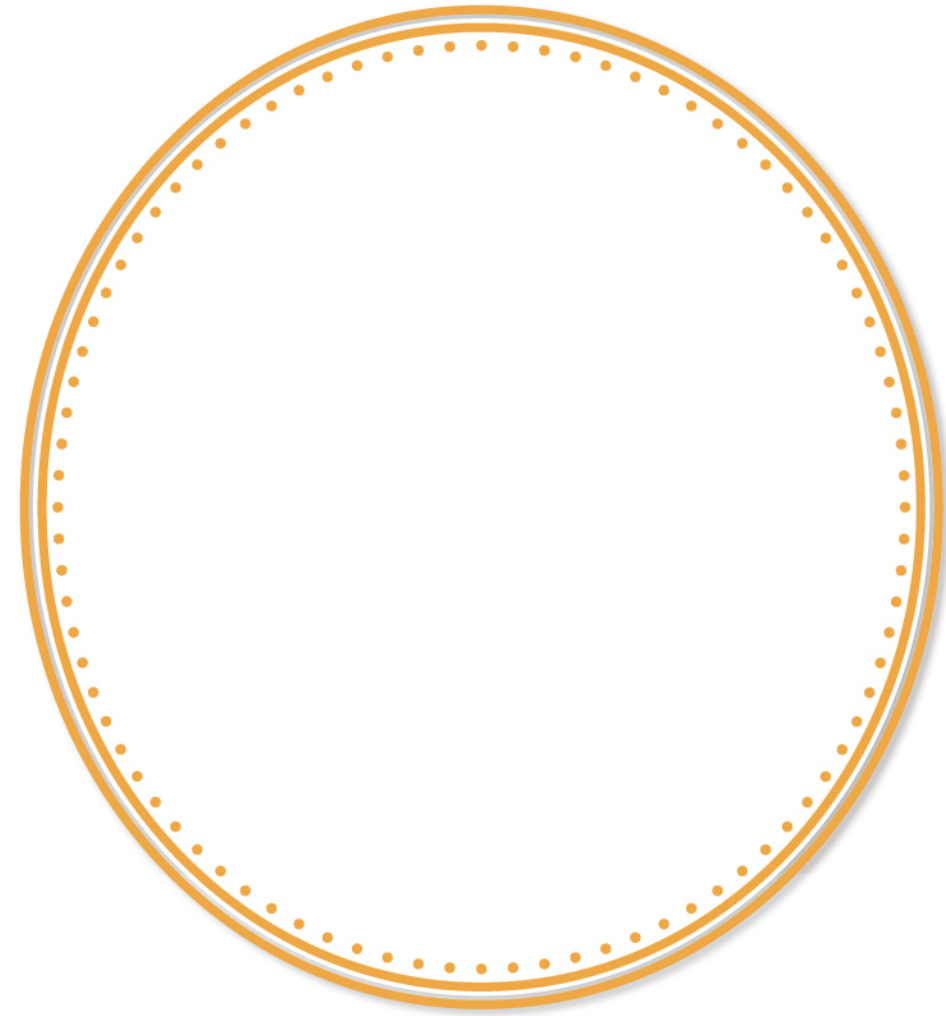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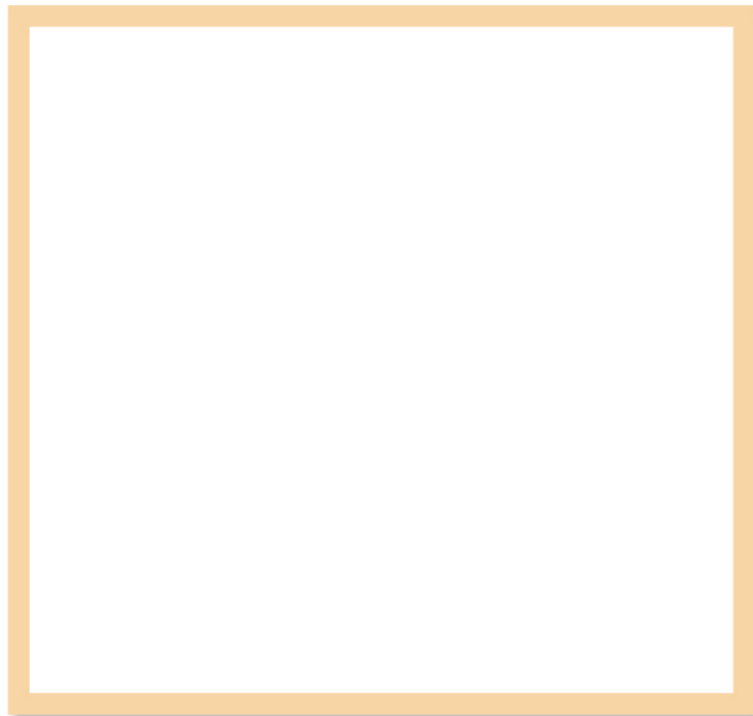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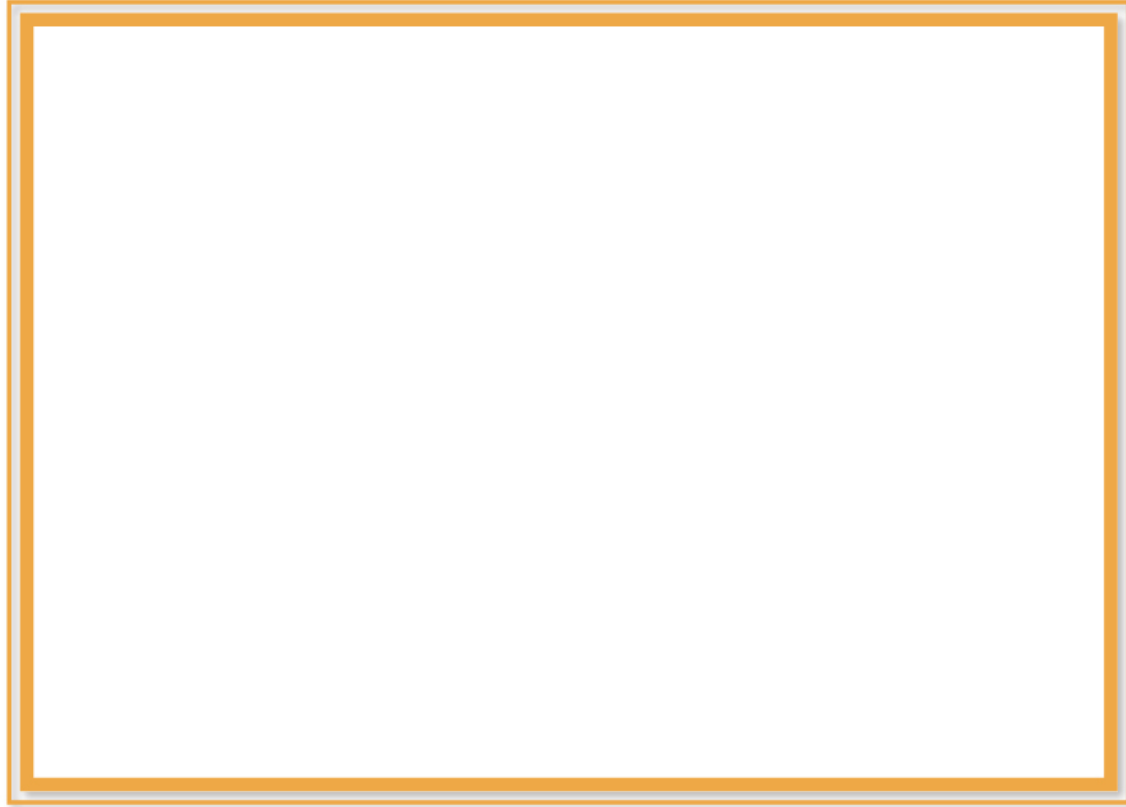
어떤 점이 닮았나요?



무엇과 왜 헤어졌나요?

헤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동물, 물건들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즐거운 추억이 많으면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즐거웠던 한때를 그림으로 그리고 액자도 꾸며 보세요.



신순재 작가와 책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이 이야기를 썼어요. 벌써 여러 해 전 일이에요. 그때는 아직 어렸던 딸을 위해 이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 저 자신을 위해 쓴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소중한 이를 남겨 주신 민경이의 두 할아버지께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세 발 두꺼비와 황금 동전

신순재 글·한병호 그림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 도서
- * 북스타트 선정 도서
- * 북스타트 책날개 선정 도서

저 달 속에는 천리만리 단숨에 날아다니는 세 발 두꺼비가 살고 있어.

그런데 세 발 두꺼비가 달을 떠난 건 딱 한 번뿐이래.

황금 동전에 홀려 먼 길을 떠난 세 발 두꺼비 이야기, 한번 들어 볼래?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른 밤,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초가에서 누군가 자분자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을 성심은 근엄한 세 발 두꺼비. 그런 두꺼비에게 엄청난 유혹이 다가옵니다. 찬란한 오색 빛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나 잡아 봐라’ 하는 것이었지요. 그 빛에 홀려 황금 동전을 덥석 물어 버린 세 발 두꺼비는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달을 떠나게 됩니다.

신순재 작가가 우연히 심사정의 그림 ‘하마선인도’를 보고 세 발 두꺼비와 신선에게 마음을 빼앗겨 홀린 듯 써내려 간 이야기에 한병호 작가의 그윽한 먹선과 노란 달빛이 더해져 신비롭고 환상적인 세계로 독자를 이끄는 그림책입니다.